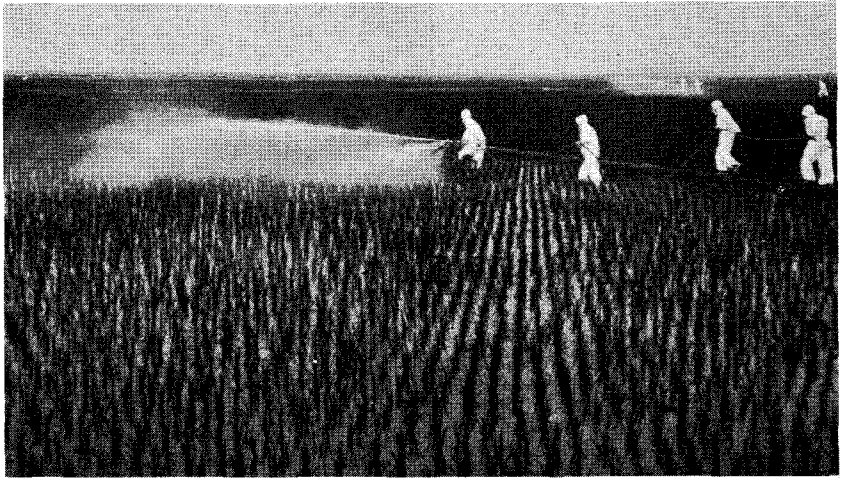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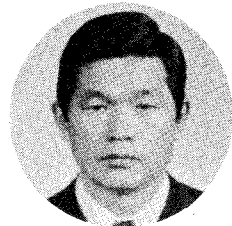
'88 병해충 방제사업 이렇게 추진된다



농림수산부 제공

금년도 병충해 방제의 추진방향은 예방위주의 동시 공동방제체제의 정착과 농약의 원활한 공급 및 안전사용지도에 중점을 두고 8년 연속 풍년을 이룩하기 위하여 총력을 기울여야 하겠다.

농림수산부 제공



농림수산부 식물방역과
과장 안 신 환

1. 예방위주의 공동방제체제의 정착

금년도 병충해 방제계획 면적은 10,777천 헥타로서 벼 식부계획면적 1,215천 헥타의 8.9회를 방제할 계획으로 지난해와 같은 수준이며, 예방위주의 적기방제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표 1).

그러나 병해충 발생은 그 해의 영농여건과 기상여건에 따라 크게 좌우되므로 기상여건이 병해충 발생조건에 좋아져서 크게 만연할 경우 방제회수를 자연히 늘리기 마련이나 가능하면 예방위주의 적기방제실시로 방제회수를 줄이면서 완벽한 방제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표 1〉 '88 병충해 방제계획

구 분		식부면적	방 제 계 획			방제회수
			계	묘 판	본 답	
계		천헥타 1, 215	10, 777	111	10, 666	회 8. 9
병 해	소 계		5, 642	72	5, 570	4. 7
	도 열 병		3, 534	39	3, 495	2. 9
	문 고 병		1, 596	—	1, 596	1. 3
	백 열 고 병		495	16	479	0. 5
	기 타		17	17	—	0. 0
총 해	소 계		5, 135	39	5, 096	4. 2
	멸 구 류 (벼 멸 구)		2, 220 (1, 301)	—	2, 220 (1, 301)	1. 8 (1. 1)
	이화명충, 기타		2, 915	39	2, 876	2. 4
	(이 화 명 충)		(1, 878)		(1, 878)	(1. 5)

가. 종합방제체제의 지속적 추진

종합방제의 기반조성은 한 해의 노력으로는 이룩할 수 없으므로 여러 해를 두고 꾸준히 계속적으로 추진해야 하므로 객토, 심경, 유기물 시용, 규산질비료의 시용등을 통하여 농토를 배양하고, 합리적 시비등을 통하여 경종방법을 개선하는 한편, 병충해 상습지 및 취약지에 내병성 품종을 확대 재배하는 등 병해충 발생을 근원적으로 억제함으로써 종합방제체제를 정착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나. 병충해 전염원 초기 박멸

월동 병해충을 조기방제하기 위해

서는 논·밭두렁 불태우기를 가능한 전 지역에 걸쳐 실시할 계획이며, 이 병 벚짚 및 복더기 등은 퇴비로 제조하여 시용함은 물론 도열병, 애멸구 등 월동 병해충의 생존량을 조사하여 병충해 사전방제를 위한 대농민 지도 및 방제자료로 활용하는 한편, 종자소독은 종자전량을 살균 및 살충제혼용 소독을 실시함으로써 완벽한 방제가 이루어지도록 홍보를 강화해 나갈 것이다.

다. 조기정밀예찰과 연계방제

병충해 방제의 관건은 조기정밀예찰을 잘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 크게 좌우되므로 조기정밀예찰에 중점

을 두고 추진하며, 예찰은 농촌진흥청 산하 151개 기본 예찰소 및 간이 예찰소를 중심으로 중요 병충별, 지역별, 품종별, 모작별로 구분하여 예찰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4월 하순부터 9월까지 주 1회 주기적으로 예찰정보를 발표, 예찰결과가 방제와 신속히 연계토록 할 것이며, 특히 병해충 발생이 우심한 지역은 전문가로 구성된 중앙 및 지방 합동예찰반을 편성하여 투망식 예찰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예찰반의 자질향상을 위해 예찰요원의 기술교육을 꾸준히 실시하고 일반 예찰요원 및 공동방제단장, 새마을 청소년회장, 기계화 영농단장, 독농가 등을 예찰요원으로 위촉하여 예찰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당일 예찰결과를 유관기관 및 농가에 신속히 통보하여 조기방제가 이루어지도록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라. 예방위주 동시 공동방제추진

“못자리 농사가 반농사”라는 말이

〈표 2〉 '88 병충해 기본 동시공동방제 기준

방 제 시 기	중 산 간 지	평 야 지
못 자 리	묘도열병+지역별 발생해충	좌 등
6월하순~ 7월상순	잎도열병+저온성 해충(이화명충)	잎도열병+바이러스 매개충(이화명충)
7월중순	잎도열병+문고병(백엽고병)	좌 등
7월하순~ 8월상순	조·중생중 목도열병(조 2, 중생 1회)+ 문고병+멸구류	중 생 중 목도열병(2모작 잎도열병)+ 문고병(백엽고병)+멸구류 (후명나방)
8월중순	중 생 중 목도열병+멸구류(이화명충)	중·중만생중 목도열병+멸구류(이화명충, 후명나방)
8월하순~ 9월상순	*멸구류	중만생중 목도열병+멸구류

*발생상황에 따라 추가 방제

있듯이 건전한 모의 육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겠다. 이를 위해 전 못자리에 약효 지속기간이 긴 농약을 사용토록 하며, 이병된 모는 소각 또는 매몰하여 본답의 전염을 방지해야 할 것이며, 본답 병충해 방제를 위해서는 예방위주의 동시 공동방제 기준을 설정하고 이에 따라 착실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표 2).

또한, 지역실정을 감안한 국지적 방제대책으로 중부부 산간지는 목도 열병을 예방위주로 적기에 방제토록 하고 서남해안 지역은 벼멸구 조기 중점방제, 남부지방은 바이러스 매개충 사전방제, 대면적 병충해 확산 방지를 위한 항공방제등을 추진하고 병충해 방제에 있어 지역별 문제점을 파악하여 문제점 중심의 방제대책을 추진함과 동시에 전국 33천개 병충해 공동방제단의 내실화로 기동성을 제고하는 한편 방제기자재를 정비 점검하여 방제기구의 활용도를 높여야 할 것이다.

마. 지역단위 책임방제 강력 추진

지역단위 유관기관간의 방제 협의회를 구성하여 조기정밀예찰, 병충해 우심지역 원인규명 및 사후대책수립 추진등 효율적인 방제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함과 동시에 병충해 발생상습지 및 방제 취약지에 대한 예비비의 집중 지원으로 병충해의 확산을

방지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한편 지역별 방제협의회를 중심으로 시기별, 병충별로 방제 연시회를 개최하고 각종 홍보 매체를 통하여 공동방제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다.

바. 병충해 발생상습지 및 취약지 중점 관리

병충해 발생상습지 및 취약지를 조사, 카드화 하여 특별관리하고 이를 요인별로 분석하여 종합방제 대책을 추진할 것이며, 주요 병충별 우심지에 상습지 종합방제 시범포(전국 16개소)를 설치하여 대농민 산교육장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사. 기상재해 사전 대비 철저

지난해는 본답기간 중 2회에 걸친 태풍(셀마,다이너)통과와 여덟 번의 집중호우, 장기간에 걸친 강우로 병충해 방제에 여러가지 어려움을 겪었다. 따라서 금년도에는 지난 해의 경험을 토대로 태풍 및 침관수 상습지에 도열병 및 백엽고병 약제를 사전 비축케 하고 태풍 통과후나 침관수 후에는 즉시 배수하고 도열병, 문고병 및 백엽고병약을 의무적으로 살포케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출수기에는 많은 강우로 목도 열병에 걸릴 우려가 크기 때문에 약효 지속기간이 긴 농약을 사전 사용토록 지도하여 예방에 힘쓸 것이다.

2. 농약의 원활한 공급 및 안전사용지도

관센타 및 단협위주로 확보할 계획이다.

가. 농약의 확보계획

'88년도 수도용 농약수급계획은 기준약제로 18,000톤을 책정하고 농협에서는 전체의 50%인 9,000톤과 돌발 병해충에 대비한 비축농약 3,000톤을 확보할 계획이다(표 3).

지역별, 약종별로 균형 재고 유지와 농약구입을 쉽게 하기 위하여 전국 약 9.7천개의 농약분산 판매소를 운영할 계획이며 신규농약을 농약보

나. 농약품질관리 및 단속 강화

농약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제조업체의 자체검사 책임자 기술교육을 실시하고 자사제품의 약효, 약해 등에 대한 자체검사로 미비점을 도출하여 보완하게 하고 불량농약의 유통근절을 위한 단속을 철저히 실시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것이다.

〈표 3〉 '88 농약수급계획

구분		전체확보 (A)	농협확보 (B)	농협확보비율 (B/A)	원제비축 계 획
합 계		톤 51,660	톤 9,000	% 17	톤 3,000
수 도	중 자 소 독 제	200	160	80	—
	묘 입 고 병	600	280	47	—
	도 열 병	5,500	2,870	52	1,090
	문 고 병	1,880	890	47	450
	백 업 고 병	480	170	35	90
소 계		8,660	4,370	50	1,630
용	살 버 멸 구	4,300	2,020	47	820
	충 이화명충, 기타	5,110	2,610	51	550
	소 계	9,410	4,630	49	1,370
계		18,070	9,000	50	3,000
원 예 용		19,380	—	—	—
제조제 및 기타		14,210	—	—	—

다. 안전 사용 계도 강화

농약의 안전사용을 위하여 농약취급관계자(시·군 농약담당 및 단속공무원, 농협판매원 및 농약시판상)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실시할 계획이며 현재 247개 품목에 대하여 농약 안전사용기준을 설정하고 농약의 과다사용을 금지토록 지도하고 동계농민교육 등에 농약안전사용에 대한 대국민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농약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방제부 92천착을 공급하고 해독제인 “팜”800천정을 보건(지) 소나 진료소등 의료기관과 영농회를 통하여 공급할 계획이다.

라. 우수농약의 지속적 개발

농약수입원제의 국산화 제고와 물질특허의 국제적 압력에 대비하여 약효 지속기간이 길고 방제가 높은 저독성 우수농약을 지속적으로 개발토록 지도하여 나갈 계획이다.

3. 맺 는 말

지난 해에는 태풍, 중부지방의 집중호우 등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식량증산에 있어 최대 관건인 병충해 피해를 최소화함으로써 7년 연속 풍년농사를 이룩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

러나 극소면적이기는 하지만 일부 특수품종의 목도열병 피해, 도열병 발생면적의 증가 등은 새로운 관심사항으로 기억해 두어야 할 것이다.

또한 농약의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겨울 영농교육, 판매상 교육, 농약관리자반 교육 등을 착실하게 추진한 결과 농약 안전사고 없이 마무리 할 수 있게 된 것은 다행한 일이라고 하겠다.

앞으로 농약관리제도의 발전적 보완은 물론 업계, 학계, 연구소등 관련기관이 서로 합심하여 보다 저독성이고 약효가 우수한 값싼 농약이 많이 개발되어 풍년농사 달성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해야 하겠으며, 농약의 사용자층에서도 라벨이나 설명서의 내용을 잘 읽어보고 사용법을 준수함은 물론 약종간 혼용가부 등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농작물에 대한 피해 및 농약안전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올해에도 8년 연속 풍년농사를 기필코 달성하기 위하여는 지난해와 같이 스스로 자기 논을 수시 예찰하고 적기에 방제하여 경제적 방제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병해충 예찰, 병충해 방제 추진, 농약의 생산 및 안정적 공급을 맡고 있는 각급 유관기관 및 단체에서는 조직적이고 착실한 업무협조로 최선을 다할 때 풍년을 기약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